

일부 대학생의 성의식, 성선호도 및 성비불균형에 관한 연구

홍 명 선 (가천길대학 보건행정과)

목 차	
I. 서 론	V. 결론 및 제언
II. 문헌고찰	참고문헌
III. 연구방법	영문초록
IV. 연구결과 및 논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성(Sexuality)은 종래 단순히 신체적인 것으로만 왜곡해서 해석하였던 것에서 인간의 성행동은 물론이고 개인이 갖는 성에 대한 환상, 태도, 가치관 등의 인성을 포함한 심리적, 사회적인 면까지로 확대 포괄적 개념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한 생각이나 외적인 표현을 금기시 해왔고 이러한 전통적 성문화가 사라지는 세대에게 가정이나 학교에서 정확한 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게 하였으며 성에 대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방적이고 정보화된 현 사회에서 성은 삶의 일부분이며 우리의 생활에서 벗어나 생각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성에 대한 명칭이 종전의 생리적 현상에만 국한시켜 사용되어 온 성(Sex)대신 인간이 성장하면서 사회, 문화, 주위환경에 따라 자신을 나타내는 성(Gender)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이와 관련해서 1994년 Cairo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의 행동강령에서 여성들의 생식보건 및 생식권리를 중요하게 취급한 사실과 1995년 북경의 세계여성대회(FWCW)에서 Sex대신 Gender를 사용하기로 결의한 것 등은 이러한 취지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중 특히 주목할 것은 남녀의 동등(Equality), 평등(Equity), 여성권향상(Empowerment of Women)으로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남아선호사상과 깊은 연관을 지을 수 있다(UN, ICPD, 1994; UN, FWCW, 1995).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의 영향권에 속해져 온 나라로서 특히 중국과 함께 남존여비의 사상으로 남아를 선호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근년에 후진제국과 더불어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는 소위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 남아선호사상을 타파하는 여러가지 대책이 강구되어 왔었다. 우리나라도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정부의 주요 시책으로 채택한 이래 1980년대 중반에는 1.6명 수준의 저출산율을 이룩하여 인구증가억제의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었

다. 특히 그 목표달성의 큰 걸림돌이 우리 사회의 남아선호사상에 있다고 판단하여 대한가족계획협회로 하여금 들날기 운동 "딸아들 구별말고 들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아래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91; 조남훈 외 1997).

그러나 소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출산력은 급격히 감소되었으나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존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공임신중절의 보편화, 의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태아성감별 등은 인구성구조의 불균형을 초래시켰다. 즉 남녀인구의 성구성상태를 말하는 출생성비(출생시 여아 100명당 남아수)가 1980년 105.3에서 1980년대 후반에 급속히 증가하여 정상출생성비인 106을 훨씬 넘어 1990년에는 116.6으로 보고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전통적 남아선호의 의식 위에 최근 과학의 경이적인 발전에 힘입어 태아성감별이 가능케 되므로 조기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여태아의 소모가 낳은 결과라고 풀이하고 있다(김일현, 1990; 조남훈, 1994). 이에 정부는 태아성감별을 위한 의료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적인 조치를 강화하였고,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보도하고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펴 나감으로서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앞으로 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의 발생을 예견케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대적 변화기에 놓여 있어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면에 걸쳐 가치규범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근래 정보통신분야의 급격한 발전으로 유입되고 있는 무분별한 성정보의 범람은 이 혼란을 가중시켜 우리 사회에 상존하고 있는 성금기 현상과 맞서 젊은세대에게 성적갈등과 함께 성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가져왔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성문화에 관하여 지향하는 목표, 교육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성관련 문제가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전한 성문화의 정착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무엇

보다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에 관한 의식, 우리 사회의 병폐인 남아선호사상, 여기에서 파생되는 성비불균형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학생지도 및 학교 성교육을 위한 대책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남녀대학생의 인구나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남녀대학생의 성만족도, 성차별, 성지식, 성개방성, 성사회관에 관한 성의식을 파악한다.
- 3) 남녀대학생의 남아선호사상을 파악한다.
- 4) 남녀대학생의 출생성비불균형에 관한 인식을 파악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시의 일 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II. 문헌고찰

1. 성(Sexuality)

최근 국제사회는 모든 인간의 인간적 존엄성과 인간적 권리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특히 여성들이 특정성별의 우월성이나 열등성 등의 고정적 관념 때문에 유발되는 규정이나 관습, 일상생활 등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 권리가 존재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국제가족계획연맹, 1996).

성(Sexuality)의 개념은 프로이드가 최초로 인간의 본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성은 여성, 남성과 같은 성별 뿐아니라 인간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성을 종전의 생리적 현상에만 국한시켜 온 성(Sex)에서 더 나

아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 성(Gender)으로 진전된 것이 성(Sexuality)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성(Sexuality)이란 성적 인격(Sexual Personality)이라고 표현하게 된다(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성(Gender)이란 남성과 여성에 관련된 태도, 행동, 역할 및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청소년때부터 학습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단순한 이성간의 관계와 차이점을 포함하여 성분석(Gender Analysis), 성균등(Gender Equality), 성평등(Gender Equity), 성정책(Gender Policy), 성관계(Gender Relation), 성민감성(Gender Sensitivity), 권익향상(Empowerment) 등 광범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분석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성관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며 성역할과 관계의 의미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성균등이란 남성과 여성이 동수, 동비율로 구성되고 남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들의 공헌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뜻하며,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공정하고 공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성정책이란 성문제를 정책 활동의 모든 국면에 통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성관계란 자원과 책임, 이익과 권리, 힘과 권위 등을 배분할 때 남녀간의 서로의 위치를 말하고 있고, 성민감성이란 성에 근거한 차별 뒤에 잠재해 있는 사회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의 범위를 분석하는 것을 이해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익향상이란 여러 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자신감, 기술, 능력을 향상하는 개인적 과정으로 부터 의사결정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자원에의 접근이 제한되어 왔던 개인 또는 집단이 지역사회에서의 법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정치적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국제가족계획연맹은 인간의 성 및 생식보건권리현장을 1996년 9월 5일 선언하므로서 위의 노력을 전세계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다(국제가족계획연맹, 1998).

이와 같이 성이란 포괄적이고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것이 사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는 관념에서 그 연구도 여러가지 제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식자들의 노력으로 성에 관한 의식구조가 조사되어 일찌기 중고교생의 성에 대한 태도(강준상, 1971), 여고생과 근로여성의 혼전성교(이옥자, 1976) 등의 조사연구가 실시되었고, 근년에는 대학생들의 결혼관과 연애관(김정옥, 김형섭, 1994), 결혼관과 자녀양육태도(정석진, 이흥숙, 1995),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성역할관(양명숙, 1996), 또한 남녀대학생의 성역할모델, 취업 및 결혼관(이동원 등, 1994) 등의 연구가 보고되었고, 특히 한국성문화연구소에서는 최근 여고생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 성인의 성의식 및 성선호도 조사연구가 실시된 바 있다(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2. 남아선호사상

근년 우리나라는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남아선호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왔다. 사업 초기인 197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에 의하면 20-44세에 속하는 유배우부인의 61%가 절대적으로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1%가 선호, 28%가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1994년 조사에서도 아직도 26.3%가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34.3%가 있는 것이 좋음, 38.9%는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하였다(홍문식 외, 1994).

이것은 근 20년간에 걸쳐 우리나라가 사회경제적인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선호의 뿌리가 아직도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이한 것은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가장 낮은 남아선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 그리고 저임금의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가장 높은 남아선호를 가지고 있었다(조남훈, 1994).

이와 같은 남아선호사상은 그간 우리나라의 전통적 유교사상에서 기인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즉 유교사상에 입각한 결혼관은 중국의 주대(周代)부터 시작되어 한대(漢代)에 이르러 완성된 종법제(宗法制)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나라는 신라시대에는 귀족사회간의 내혼제(內婚制)가 성행되었으

며 그 후 고려시대에는 그 중기이후 근친혼 내지는 동성혼이 금지되기 시작하였고, 조선조는 유학을 건국이념으로 하여 오던 중 그 후기에 이르러 속대전(續大典) 예전(禮典) 혼가조(婚嫁條)에 동성이본혼(同姓異本婚)까지를 금지하는 등을 배경으로 한 남성중심의 족벌적(Patrilineal), 토족적(Patrilocal)의 가부장제(Patriarchal)가 정착되어 오므로써 가족에 있어서 남아선호사상이 보편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7). 그러나 현재의 우리 사회는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여 위에서 파생된 신분적 계급제나 남존여비사상을 탈바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인 및 가족관념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경제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증가 및 이동 등 경제, 사회, 문화면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 이러한 현대화의 풍조가 많은 영향을 끼쳐 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남아를 가져야 하겠다는 사상이 잔존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첫째, 전통적 가계계승을 위한 이유로 가문유지 35.1%,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10.3%, 둘째, 자식으로 부터의 도움을 목적으로 노후생활보장 8.0%, 경제적도움 2.9%, 셋째, 정신적 만족감을 위한 이유로 심리적 만족 69.6%, 가정의 행복 41.6%로 나타나고 있어 남아선호는 아직도 상당히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조남훈 외, 1997).

전통적 유교사상을 신봉하여 온 중국에 있어서도 남아선호는 여전히 존재하여 출생성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되었고(Gu Bao Chang, Li Yong Ping, 1994), 그 이유는 특히 노후보장이라고 하였으며, 대만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고(Chang Ming Cheng, 1994), 우리나라의 보고에서도 남아선호사상이 인공임신중절과 함께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이라고 하였다(조남훈, 1994).

이와 같은 풍조는 우리나라 법제의 면에서 이를 엿볼 수 있는 바 개인상호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민법 중 특히 가족제도를 규범화하고 있는 가족법(친족법, 상속법)은 남아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다. 즉 1970년대 초 정부가 가족계획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들 딸을 구별하지 않는 사상이 국민에게 계몽 인식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가족법을 남자중심에서 남녀평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김주수, 1974). 1958년에 제정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그 후 수차례 걸쳐 개정되었으며 그 중 가족법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남성우위의 봉건적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요소를 완화시켜 미성년자의 혼인, 부부의 귀속불분명재산을 부부의 공유, 부모의 친권을 공동행사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단서를 삭제, 처의 상속분의 증가, 여자상속인의 상속분을 남자상속인과 균등하게 개정하였고, 협의이혼의 가정법원 확인, 유유분제도를 신설하였다(김주수, 1990; 김엘림, 1991).

이러한 개정을 통해 가부장적요소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호주제도와 동성동본불혼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가부장제가족제도가 가족법의 뼈대를 이루고 있던 중 1997년 7월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불혼제도를 헌법불합치로 판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민주적 가족생활영위에 많은 공헌이 있게 되어 남아선호사상타파의 앞날에 큰 광명을 비치게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7).

또한 여권론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모든 계급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여성과 관련되지 않는 국가적 정책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여성에 관한 정책이 여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바 그 근본원리는 여성정책이란 여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이것을 가로막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때 진정한 의미의 성차별문제가 해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혜경, 1990).

3. 성비불균형

1962년부터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사업은 인구증가억제에 큰 진전을 보여 오던 중 1980년 중반이 지나 이미 목표하였던 인구증가를

1%를 달성하게 되었으며 이때 출산율은 1.6명 수준에 도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남아선호의 태도는 크게 변화된 바 없으며 부인들이 원하는 2명의 아들을 갖기 위하여는 적어도 약 3.9명정도의 자녀를 가져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 소자녀를 기대하기 때문에 상호모순의 현실을 가져오므로서 원하는 자녀수 후에 임신하는 태아의 성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오던 중 최진 의학기술의 진보로 태아의 성감별이 지극히 용이하게 되므로서 아들출산의 조절이 가능하여 이로 인하여 출생성비의 불균형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드디어 정부의 이에 대한 처벌이 현실화하기에 이르렀다(조남훈, 1994).

원래 남녀인구의 성별구성상태를 인구학적으로 성비(Sex Ratio)라고 지칭하여 보통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를 표시하는 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성비는 인체의 발생 및 성장과 연결시켜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인데 체내의 수정의 단계를 1차성비로, 출생의 단계를 2차성비로, 재생산연령에 도달될 때를 3차성비로 구분하고 있다. 이 지표는 1차성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2차성비에서는 남성이 약간 큰 숫자를 나타내고, 3차성비에 이르러서는 그 차이가 줄어들게 되어 있다.

1차성비가 160정도로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유전자를 내포한 염색체가 인간에 있어서는 상염색체가 22쌍이고 성염색체는 남성인 경우 XY, 여성인 경우 XX로 한쌍을 이루고 있는데 남녀의 성염색체결합이 XX이면 여성이 되고, XY가 되면 남성으로 성이 결정되며, 보통 정액중의 정자는 Y형정자수가 X형정자수의 2배이고 Y형정자의 활동성이 X형정자에 비해 활발하여 난관을 통해 난소 가까이 도달하기 쉬우므로 남성이 되는 수정란이 많게 되어 전술한 바 1차성비가 월등하게 높게 되고 태내에서 2차성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태아의 태아소모율이 여태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2차성비에서는 다소 높게 나타나게 된다(유훈, 1994).

그동안 2차성비는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왔는데 국가나 민족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 비교적 성비가 높은 나라로

분류되어 있고 영국과 일본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미국은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신성철, 1987).

우리나라의 출생성비는 원래 1930년에는 101.5, 1940년 103.6, 1960년 105.8, 1970년 106.5이었던 것이 1980년에는 105.3, 1985년 109.4, 1990년 116.6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1995년에는 113.4로 다소 절하되었다고 하나 정상성비인 106을 훨씬 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 1953년 104.9, 1990년 111.7, 대만 1981년 107.3, 1990년 109.1, 홍콩 1961년 103.3, 1991년 109.7 등 같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다른나라에 비하여도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박재빈, 1994). 특히 주목하여야 할 점은 이러한 현상이 도시농촌간의 차이보다는 일부 지방에 극히 높아 1988년에는 대구 135.4, 경북 126.1, 경남 119.5로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종래의 남아선호사상과 더불어 태아성감별이라는 요인이 가중되었는지 않았나 의심을 받게 하고 있다(김일현, 1990).

이와 같은 2차성비의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여파로서 우선 초등학교학생에서 그 교육에 필수적인 양성간의 짝짓기에 영향을 미쳐 그 인격형성의 이념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시키고 있고, 이들이 결혼적령기에 도달할 때 신부의 부족현상으로 결혼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될 낭패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현상은 특히 인구이동에 가중하여 농촌에서 극심하게 나타날 것이 예견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술한 바 농촌의 인력부족현상이 경제사회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것 외에도, 출산력의 저하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구의 노령화를 가져오며, 이에 따른 사회보장과 복지대책문제가 더욱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특히 태아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성행한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마저 유린시킨다는 관점에서 큰 인권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이미 언급한 결혼관행의 변화에 있어 남자 초혼연령의 상승, 부부간의 연령차이의 변화, 여자의 재혼에 대한 편견의 불식 등과 같은 문제는 앞으로의 우리의 사회전망을 어렵게 하게 된

다(김태현, 주학중, 1994).

물론 남아선호의 전통적 가치관과 태아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의 성행이 이와같은 출생성비불균형의 골간이 되었다고 하나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급격한 발전과 태아성감별의 법적제재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노력이 이를 방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학교 내, 학교 외 성교육의 추진으로 많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도구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1998년 현재 인천광역시 일 대학에 재학중인 1,2학년 남녀대학생 중 임의 추출한 409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로는 관련자료 및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설문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2. 조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1998년 6월5일부터 6월1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4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즉석에서 직접 기입하게 한 후 이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중 미회수 설문지, 응답내용이 부실한 11부를 제외한 409부의 설문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고, 수집된 설문지는 SPSS/PC+, SA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비교하였으며, 성별, 종교유무의 유의성 검증은 χ^2 -test, 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는 총 409명이었으며, 성별분포는 남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409

특성	구분	인수(%)
성별	남자	208(50.9)
	여자	201(49.1)
연령	19세이하	58(14.2)
	20세-24세	275(67.2)
	25세-29세	60(14.7)
	30세이상	8(2.0)
	무응답	8(2.0)
거주형태	부모와 동거	347(84.8)
	자취	34(8.3)
	하숙	2(0.5)
	친척집	12(2.9)
	기타	8(2.0)
	무응답	6(1.5)
형제자매수	1남	8(2.0)
	1녀	1(0.2)
	1남1녀	114(27.9)
	2남	48(11.7)
	2녀	3(0.7)
	3남	6(1.5)
	3녀	3(0.7)
	1남2녀	61(14.9)
	2남1녀	40(9.8)
	4남	2(0.5)
	4녀	4(1.0)
	1남3녀	22(5.4)
	2남2녀	11(2.7)
	3남1녀	3(0.7)
1남4녀	15(3.7)	
2남3녀	7(1.7)	
3남2녀	4(1.0)	
4남1녀	1(0.2)	
기타	47(11.5)	
무응답	9(2.2)	
종교	무교	162(39.6)
	기독교	129(31.5)
	천주교	55(13.4)
	불교	58(14.2)
	기타	1(0.2)
	무응답	4(1.0)

월평균	100만원미만	96(23.5)
소득	100만원-200만원미만	172(42.1)
	200만원-300만원미만	58(14.2)
	300만원-400만원미만	26(6.4)
	400만원이상	8(2.0)
	무응답	49(12.0)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	22(5.4)
	사무직	45(11.0)
	기술직	74(18.1)
	서비스직	31(7.6)
	사업(상업포함)	143(34.9)
	공무원	11(2.7)
	농어업	21(5.1)
	기타	2(0.5)
	무응답	60(14.7)
어머니의 직업	전문직	15(3.7)
	사무직	12(2.9)
	기술직	26(6.4)
	서비스직	27(6.6)
	사업(상업포함)	60(14.7)
	전업주부	199(48.7)
	농어업	13(3.2)
	무응답	57(13.9)
아버지와의 인간관계	매우 만족	131(32.0)
	약간 만족	124(30.3)
	약간 불만족	112(27.4)
	전혀 불만족	38(9.3)
	무응답	4(1.0)
어머니와의 인간관계	매우 만족	217(53.1)
	약간 만족	126(30.8)
	약간 불만족	58(14.2)
	전혀 불만족	6(1.5)
	무응답	2(0.5)

자 208명(50.9%), 여자 201명(49.1%)이었다.

연령별로는 19세이하가 58명(14.2%), 20세-24세가 275명(67.2%)로 가장 많았고, 25세-29세가 60명(14.7%), 30세이상인 8명(2.0%)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부모와 동거 347명(84.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자취 34명(8.3%), 친척집 12명(2.9%), 하숙 2명(0.5%)의 순이었다.

형제자매수는 1남1녀가 114명(2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남2녀가 61명(14.9%)이고 그 다음은 2남 48명(11.7%), 2남1녀 40명(9.8%), 1남3녀 22명(5.4%), 1남4녀 15명(3.7%), 2남2녀 11명(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242명(59.1%),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162명(39.6%)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았고, 그 중 기독교가 129명(31.5%), 불교 58명(14.2%), 천주교 55명(13.4%) 순이었다.

월평균소득은 100만원-200만원미만이 172명(4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00만원미만이 96명(23.5%), 200만원-300만원미만 58명(14.2%), 300만원-400만원미만 26명(6.4%), 400만원이상도 8명(2.0%)를 차지하였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사업(상업포함)이 143명(34.9%), 기술직 74명(18.1%), 사무직 45명(11.0%), 서비스직 31명(7.6%), 전문직 22명(5.4%), 농어업 21명(5.1%)의 순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199명(48.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사업(상업포함) 60명(14.7%), 서비스직 27명(6.6%), 기술직 26명(6.4%), 전문직 15명(3.7%), 농어업 13명(3.2%), 사무직 12명(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255명(62.3%), 어머니와는 343명(83.9%)의 학생이 만족함을 나타냈고, 불만족에 대한 응답은 아버지와는 150명(36.7%),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64명(15.7%)이 불만족으로 응답하여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훨씬 더 친밀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앞으로 자녀교육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

2. 성의식

남녀대학생의 성만족도, 성차별, 성지식, 성개방성, 성사회관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1) 성만족도

자아의 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5항목을 조사하였다.

남학생은 '아들로 태어난 것에 만족하는가'의 질문에 매우 만족(62.0%), 약간 만족(28.4%), 약간 불만족(4.8%), 전혀 불만족(2.9%)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남학생의 대다수인 90.4%가 자신의 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다만 7.7%의 학생들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표 2-1>.

여학생은 '딸로 태어난 것에 만족하는가'의 질문에 매우 만족(39.3%)로 가장 많았고, 약간 만족(29.4%), 약간 불만족(25.4%), 전혀 불만족(6.0%)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의 68.7%는 자신의 성에 대하여 만족함을, 31.4%는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냈다<표 2-2>.

성별에 따른 남녀대학생의 성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문항을 4점척도(1점: 전혀 불만족에서 4점: 매우 만족)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01$)<표 2-3>.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훨씬 더 자신의 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성별을 원하는가'의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남성'(42.9%)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어느 성이든 상관없다'(33.6%), '여성'(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 < 0.000$), 남학생은 같은 성인 '남성'

(54.3%), 다른 성인 '여성'(13.0%)을 원한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같은 성인 '여성'(34.5%), 다른 성인 '남성'(31.0%)을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다른 성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남성을 선택한 이유로는 '사회적으로 유리하므로'(39.0%)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24.4%), '여자로 한 번 태어났으므로'(11.0%), 남성의 우월성(6.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 < 0.000$)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은 우리 사회가 남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답변하였다<표 3-1>.

여성을 원하는 이유로는 '여자가 좋다'(41.2%)의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의 추구'(24.7%), '생계부담이 없다'(11.3%), '남성으로 부터 보호받고 싶어서'(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p < 0.005$), 남학생은 가장 큰 이유로 '생계부담이 없다', '여자

<표 2-3> 남녀대학생의 성만족도 차이검증

성별	Mean ± S.D	t	p
남자	3.52±0.7256	6.0283	0.0001
여자	3.02±0.9432		

<표 2-1> 남학생의 성만족도

문항	명(%)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전혀불만족	무응답
아들로 태어난 것에 만족하는가	129(62.0)	59(28.4)	10(4.8)	6(2.9)	4(1.9)
					208(100.0)

<표 2-2> 여학생의 성만족도

문항	명(%)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전혀 불만족	계
딸로 태어난 것에 만족하는가	79(39.3)	59(29.4)	51(25.4)	12(6.0)	201(100.0)

가 좋다' 각각(30.8%)로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여자가 좋다'(45.1%), 다음은 '미의 추구'(23.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3-2>.

2) 성차별

남녀대학생에게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성차별적 불평등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3항목을 조사하였다.

남학생은 '가정내에서 여자에 비해 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59.1%)', '그렇다'(39.5%)로 거의 절반이상의 학생이 반대하였고, 또한 '학교내에서 자신의 언행

으로 상대방 여학생이 불쾌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가'의 질문에서는 '그렇다'(55.3%), '그렇지 않다'(42.8%)로 답하였다<표 4-1>.

여학생은 '가정내에서 남자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53.3%), '그렇다'(45.3%)로 응답하였고, 또한 '학교내에서 남자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의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57.3%), '그렇다'(42.8%)로 응답하여 절반이상의 학생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표 4-2>.

<표 3> 다시 태어난다면 원하는 성 명(%)

성 별	남 성	여 성	상관없다	계
남 자	113(54.3)	27(13.0)	68(32.7)	208(100.0)
여 자	62(31.0)	69(34.5)	69(34.5)	200(100.0)
계	175(42.9)	96(23.5)	137(33.6)	408(100.0)

$$\chi^2 = 33.101 \quad p = 0.000$$

<표 3-1> 남성을 선택하는 이유 명(%)

성 별	사회적으로 유리	능력 발휘	남성의 우월성	여자로 한번 태어남	기타	계
남 자	36(32.7)	33(30.0)	9(8.2)	.	32(29.1)	110(100.0)
여 자	31(50.0)	9(14.5)	2(3.2)	19(30.6)	1(1.6)	62(100.0)
계	67(39.0)	42(24.4)	11(6.4)	19(11.0)	33(19.2)	172(100.0)

$$\chi^2 = 57.767 \quad p = 0.000$$

<표 3-2> 여성을 선택하는 이유 명(%)

성별	남성으로 부터 보호	생계부담이 없다	미의 추구	여자가 좋다	기타	계
남자	1(3.8)	8(30.8)	7(26.9)	8(30.8)	2(7.7)	26(100.0)
여자	9(12.7)	3(4.2)	17(23.9)	32(45.1)	10(14.1)	71(100.0)
계	10(10.3)	11(11.3)	24(24.7)	40(41.2)	12(12.4)	97(100.0)

$$\chi^2 = 14.904 \quad p = 0.005$$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를 유지해 온 가부장제도로 부터 뿌리깊게 내려오고 있는 남성우월주의적 사고와 결부시킬 수 있다.

다음은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성차별적 사회구조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전체응답자 중 대부분의 학생인 95.6%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38.4%, 약간 그렇다 57.2%)로 응답하여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느끼고 있었고,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p < 0.000$)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훨씬 더 성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에 대하여 남녀대학생 모두 절대적으로 차별이 있다고 답변한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높게하고 있다.

3) 성지식

대학생들의 성지식에 관련된 것으로 8항목을 조사하였다.

우선 '성에 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는데 전체응답자의 65.4%(매우 그렇다 7.1%, 다소 그렇다 58.3%)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4.6%(전혀 그렇지 않다 2.7%, 거의 그렇지 않다 22.8%, 모르겠다 9.1%)는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표 6>.

다음은 실제로 성에 관한 지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6항목을 조사하였는데 '여성의 처녀막은 성관계할 때만 파열된다', '정상분만은 출산시에 아기가 다리부터 나오는 것을 말한다'의 질문에 가장 많은 학생이 '아니다'로 응답하여 정답(90.2%)을 맞추었고, 가장 많이 오답을 한 문항으로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곳은 자궁이다'의 문항으로 과반수이상인 56.7%가 '그렇다'로 틀린 답변을 하였다<표 7>. 6문항을 정답 1점, 오답 0점으로 처리하여 합산한 결과 6점만점에 평균점수는 4.1247이었으며,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표 4-1> 남학생의 가정, 학교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의견 명(%)

문항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계
가정내에서 여자에 비해 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13(6.3)	69(33.2)	89(42.8)	34(16.3)	3(1.4)	208(100.0)
자신의 언행으로 상대방 여학생이 불쾌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가	11(5.3)	104(50.0)	63(30.3)	26(12.5)	4(1.9)	208(100.0)

<표 4-2> 여학생의 가정, 학교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의견 명(%)

문항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계
가정내에서 남자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14(7.0)	77(38.3)	48(23.9)	59(29.4)	3(1.5)	201(100.0)
학교내에서 남자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8(4.0)	78(38.8)	96(47.8)	19(9.5)	0(0.0)	201(100.0)

($p < 0.000$),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성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1>.

성지식의 습득경로를 조사한 결과 대중매체(32.6%)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주위친구(31.9%), 학교 성교육(15.1%), 책(13.6%), 부모(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 < 0.001$), 남학생은 대중매체(36.5%)를 통해서가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주위친구(37.1%)를 통한 지식습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성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이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역시 어려운 질문에는 오답자가 많았고, 성지식 습득경로로 대중매체, 주위친구들로 부터가 높게 나타난 반면 가정과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통한 지식습득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릴적 부터 부모로 부터의 성교육,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주위친구로 부터의 지식습득은 그릇된 지식전파 등의 많은 문제점이 우려된다.

4) 성개방성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

<표 5>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대한 의견

성별	명(%)				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남자	53(25.5)	141(67.8)	9(4.3)	5(2.4)	208(100.0)
여자	104(51.7)	93(46.3)	2(1.0)	2(1.0)	201(100.0)
계	157(38.4)	234(57.2)	11(2.7)	7(1.7)	409(100.0)

$\chi^2 = 32.043 \quad p = 0.000$

<표 6> 성지식에 관한 인식정도

성별	명(%)					계
	전혀 그렇지않다	거의 그렇지않다	모르겠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자	7(3.4)	31(15.0)	14(6.8)	132(63.8)	23(11.1)	207(100.0)
여자	4(2.0)	62(30.8)	23(11.4)	106(52.7)	6(3.0)	201(100.0)
계	11(2.7)	93(22.8)	37(9.1)	238(58.3)	29(7.1)	408(100.0)

$\chi^2 = 26.064 \quad p=0.000$

<표 7> 성에 관한 지식

문 항	명(%)		
	정답자	오답자	계
여성의 처녀막은 성관계 할 때만 파열된다	369(90.2)	40(9.8)	409(100.0)
정자는 여성의 생식기안에서 보통 1주일동안 생존할 수 있다	190(46.5)	219(53.5)	409(100.0)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곳은 자궁이다	177(43.3)	232(56.7)	409(100.0)
임신이 가능한 시기는 월경전 12-19일경이다	287(70.2)	122(29.8)	409(100.0)
정상분만은 출산시에 아기가 다리부터 나오는 것을 말한다	369(90.2)	40(9.8)	409(100.0)
정관수술은 발기장애와 상관이 없다	295(72.1)	114(27.9)	409(100.0)

의 개방에 관련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5항목을 조사하였다<표 9>.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표현은 자연스러워 보인다'의 질문에서 반대(57.9%), 찬성(36%)로 응답하였고,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혼전 성관계는 가능하다'의 질문에서는 찬성(47.2%), 반대(45%)로 답하였으며, '사랑이 없어도 성관계는 가질 수 있다'의 질문에는 찬성(20.7%), 반대(44.6%), '성관계

가 남녀의 애정관계에 중요하다'의 질문에서는 찬성(70.8%), 반대(21.1%), '동성애는 용납될 수 있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반대(75.3%), 찬성(12.0%)로 나타났다.

각 문항을 5점척도(1점; '적극반대'에서 5점; '적극찬성')로 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각 문항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혼전 성관계는 가능하다'의 질문에서는 남학생은 평균점수가 3.38인데 비해 여학생은 2.25로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냈고 또한 '사랑이 없어도 성관계는 가질 수 있다'의 질문에 대해서도 남학생의 경우 평균점수가 3.34, 여학생은 1.68로 남학생이 훨씬 더 개방적인 사고를 나타내고 있다. 동성애에 관한 질문에서는 남녀학생 모두 부정적인 사고를 나타내고 있다<표 9-1>. 종교유무에 따른 성의 개방

<표 7-1> 성별에 따른 성지식에 관한 차이 검증

성별	Mean±S.D	t	p
남자	3.76±1.36	- 6.019	0.000
여자	4.50±1.10		

<표 8> 성지식 습득경로

성별	습득경로						명(%)
	학교성교육	대중매체	책	주위친구	부모	기타	
남자	22(10.6)	76(36.5)	33(15.9)	56(26.9)	5(2.4)	16(7.7)	208(100.0)
여자	39(19.8)	56(28.4)	22(11.2)	73(37.1)	3(1.5)	4(2.0)	197(100.0)
계	61(15.1)	132(32.6)	55(13.6)	129(31.9)	8(2.0)	20(4.9)	405(100.0)

$\chi^2=19.624$ $p=0.001$

<표 9> 성개방성에 대한 태도

문항	태도					명(%)
	적극찬성	약간찬성	모르겠다	약간반대	적극반대	
1.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표현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24(5.9)	123(30.1)	25(6.1)	183(44.7)	54(13.2)	
2.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혼전 성관계는 가능하다	23(5.7)	169(41.5)	32(7.9)	81(19.9)	102(25.1)	
3. 사랑이 없어도 성관계는 가질 수 있다	84(20.7)	-	141(34.7)	-	181(44.6)	
4. 성관계가 남녀의 애정관계에 중요하다	84(20.6)	205(50.2)	33(8.1)	60(14.7)	26(6.4)	
5. 동성애는 용납될 수 있다	6(1.5)	43(10.5)	52(12.7)	70(17.2)	237(58.1)	

적사고에 관한 질문에서는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혼전 성관계는 가능하다', '사랑이 없어도 성관계는 가질 수 있다'의 질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표 9-2>.

5) 성사회관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성풍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5항목을 조사하였다<표 10>.

'오늘날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에 집착하고 있다'의 질문에 '그렇다'(87.1%), '그렇지 않다'(7.1%)로 답하였고,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한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의 물음에는 '그렇다'(70.8%)가 동의하였고, '그렇지 않다'(25.1%)가 반대하였다. '우리 사회는 성의 자유로운 표출을 억압하고 있다'의 질

문에서는 '그렇다'(84.4%), '그렇지 않다'(11.8%)로 응답하였고, '우리 사회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다'의 질문에 '그렇다'(86.5%), '그렇지 않다'(8.3%)로 답하였고, '우리 사회는 성개방 풍조가 만연해 있다'의 질문에서는 '그렇다'(68.4%), '그렇지 않다'(24.3%)로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대다수의 학생이 우리 사회의 현 상황에 대하여 많은 우려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한 많은 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각 문항을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오늘날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에 집착

<표 9-1> 성별에 따른 성개방성에 관한 차이검증

문항	성별	Mean ± S.D	t	p
1.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은 자연스럽다	남자	2.93 ± 1.2376	3.9613	0.0001
	여자	2.47 ± 1.1048		
2.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혼전 성관계는 가능하다	남자	3.38 ± 1.1442	9.2855	0.0000
	여자	2.25 ± 1.3055		
3. 사랑이 없어도 성관계는 가질 수 있다	남자	3.34 ± 1.4180	12.8502	0.0001
	여자	1.68 ± 1.1767		
4. 성관계가 남녀의 애정관계에 중요하다	남자	2.23 ± 1.0846	-2.3892	0.0087
	여자	2.50 ± 1.2005		
5. 동성애는 용납될 수 있다	남자	1.55 ± 0.9364	-4.8190	0.0001
	여자	2.07 ± 1.2075		

<표 9-2> 종교유무에 따른 성개방성에 관한 차이검증

문항	종교	Mean ± S.D	t	p
1.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표현은 자연스럽다	무	2.78 ± 1.1529	0.9211	0.1788
	유	2.67 ± 1.2129		
2.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혼전 성관계는 가능하다	무	3.01 ± 1.2781	2.1749	0.0151
	유	2.71 ± 1.3839		
3. 사랑이 없어도 성관계는 가질 수 있다	무	2.76 ± 1.5871	2.4688	0.0070
	유	2.38 ± 1.5037		
4. 성관계가 남녀의 애정관계에 중요하다	무	2.43 ± 1.1683	1.0866	0.1390
	유	2.31 ± 1.1293		
5. 동성애는 용납될 수 있다	무	1.87 ± 1.1209	1.0541	0.1463
	유	1.75 ± 1.0953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다'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 우리 사회의 성 관련문제에 대하여 더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표 10-1>. 종교 유무에 따른 성사회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0-2>.

성의식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를 검토하여 보면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설문문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또한 조사시기의 차이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서로의 대조를 곤란케하고 있다. 전반적인 면에서 이를 비교하여 보면 성의식에 관하여 남녀고교생들은 대략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그들의 성지식의 정도는 남고생들이 여고생보다 높다고 하나 둘

다 낮은 수준에 있고, 그 습득경로도 학교교육이 아닌 주위친구, 대중매체를 통하여 입수한 것이 가장 많았고(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혼전성관계에 대하여는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하여 반대하는 정도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정석진, 이흠숙, 1995), 다른 대학생들의 조사에 있어서도 동거, 혼전순결에 대하여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하였다(양명숙, 1996).

3. 성선택도

1) 남아선호사상

우리 사회의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태도 및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3항목을 조사하였다.

<표 10> 성과 관련된 사회관

문 항	명(%)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모르겠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오늘날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에 집착하고 있다	81(19.9)	274(67.2)	23(5.6)	25(6.1)	4(1.0)
2.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한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81(19.9)	207(50.9)	17(4.2)	91(22.4)	11(2.7)
3. 우리 사회는 성의 자유로운 표출을 억압하고 있다	70(17.2)	274(67.2)	16(3.9)	44(10.8)	4(1.0)
4. 우리 사회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다	142(34.8)	211(51.7)	21(5.1)	31(7.6)	3(0.7)
5. 우리 사회는 성개방 풍조가 만연해 있다	53(13.0)	226(55.4)	30(7.4)	88(21.6)	11(2.7)

<표 10-1> 성별에 따른 성사회관에 관한 차이검증

문 항	성별	Mean ± S.D	t	p
1. 오늘날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에 집착하고 있다	남자	4.05 ± 0.7387	1.6849	0.0464
	여자	3.93 ± 0.7953		
2.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한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남자	3.65 ± 1.1081	0.4262	0.3351
	여자	3.61 ± 1.1249		
3. 우리 사회는 성의 자유로운 표출을 억압하고 있다	남자	3.87 ± 0.8519	-0.5307	0.2980
	여자	3.91 ± 0.8459		
4. 우리 사회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다	남자	3.91 ± 0.9592	-5.1321	0.0001
	여자	4.34 ± 0.7049		
5. 우리 사회는 성개방 풍조가 만연해 있다	남자	3.57 ± 1.0788	0.5485	0.2919
	여자	3.52 ± 1.0223		

'우리 사회가 여아에 비하여 남아를 선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전체응답자 중 '그렇다'(97.1%), '그렇지 않다'(2.9%)로 응답하여 대다수의 학생이 우리 사회가 남아를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 < 0.000$),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들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표 11>.

다음은 '매우 그렇다' 혹은 '약간 그렇다'로 응답한 사람에 한하여 남아선호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여 2개를 선택하게 한 결과 '아들이 있어야 대를 이을 수 있으므로'(37.5%)로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아들이 있어야 제사를 지낼 수 있으므로'(16.1%), '딸은 남의 집 사람이 되므로'(15.5%), '아들이 있어야 노후가 보장되므로'(15.4%), '시댁에 떳떳하므로'(12.3%), '아들의 능력이 월등함으로'(3.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 < 0.000$), 남학생은 '대를 잇기위해'(39.8%), '딸은 남의 집 사람이 되므로',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가 각각(16.7%), '노후보장'(13.5%), '시댁에 떳떳하므로'(7.5%), '아들의 능력이 월등함으로'(5.8%)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대를 잇기위해'(35.3%), '노후보장', '시댁에 떳떳하므로'가 각각(17.2%),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15.5%), '딸은 남의 집 사람이 되므로'(14.3%), '아들의 능력이 월등함으로'(0.6%)의 순이었다<표 11-1>. 이 결과는 성인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대를 잇기 위해서'를 가장 많은 응답자가 그 원인으로 지적한 것과 일치한다(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다음은 남아선호사상의 개선책에 대한 조사로 '남아선호의 사회적풍조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의 질문에 '의식개혁 캠페인'

<표 10-2> 종교 유무에 따른 성사회관에 관한 차이검증

문 항	종교	Mean ± S.D	t	p
1. 오늘날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에 집착하고 있다	무	3.94 ± 0.8056	-0.9220	0.1786
	유	4.02 ± 0.7459		
2.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한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무	3.73 ± 1.0606	1.4408	0.0752
	유	3.56 ± 1.1459		
3. 우리 사회는 성의 자유로운 표출을 억압하고 있다	무	3.94 ± 0.8683	0.9610	0.1686
	유	3.86 ± 0.8281		
4. 우리 사회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다	무	4.04 ± 0.9414	-1.5263	0.0640
	유	4.18 ± 0.8081		
5. 우리 사회는 성개방 풍조가 만연해 있다	무	3.57 ± 1.0507	0.3099	0.3784
	유	3.53 ± 1.0454		

<표 11> 우리 사회의 남아선호에 대한 인식

성별	명(%)				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남자	70(33.7)	128(61.5)	7(3.4)	3(1.4)	208(100.0)
여자	109(54.2)	90(44.8)	-	2(1.0)	201(100.0)
계	179(43.8)	218(53.3)	7(1.7)	5(1.2)	409(100.0)

$\chi^2 = 22.208$ $p = 0.000$

(52.0%)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회구조 개선'(30.2%), '관련법 개정'(10.9%), '노력이 불필요'(1.7%)의 순이었으며,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0$)<표 12>.

2) 자녀관

다음은 앞으로 대학생들이 결혼을 할 경우 원하는 자녀수, 자녀의 성별, 아들의 필요성, 누가 가장 아들을 기대할 것인가에 대하여 4항목을 조사하였다.

우선 '원하는 자녀의 수'에 대한 질문에 전체응답자 중 '2명'(67.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3명'(18.4%), '1명'(9.8%), '5명이상'(2.5%), '4명'(2.2%)의 순이었으며,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표 13>.

'결혼 후 자녀를 하나만 가질 경우 어느 성별을 원하십니까'의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상관없다'(59.7%)로 답하였고, '아들'(21.5%), '딸'(15.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 < 0.000$), 남학생은 '아들'(30.8%), '딸'(16.3%)로 아들을 더 원하였고, 반면에 여학생은 '아들'(11.9%), '딸'(15.4%)로 딸을 더 원하였다<표 14>.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전체응답자 중 '없어도 된다'(45.9%),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39.6%), '있어야 한다

<표 11-1> 남아선호 원인에 대한 의견

성별	명(%)						
	대를 잇기위해	딸은 남의 집 사람이 되므로	노후보장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시댁에 떳떳하므로	아들의 능력이 월등하므로	계
남자	138(39.8)	58(16.7)	47(13.5)	58(16.7)	26(7.5)	20(5.8)	347(100.0)
여자	121(35.3)	49(14.3)	59(17.2)	53(15.5)	59(17.2)	2(0.6)	343(100.0)
계	259(37.5)	107(15.5)	106(15.4)	111(16.1)	85(12.3)	22(3.2)	690(100.0)
		$\chi^2=30.973$	$p=0.000$				

<표 12> 남아선호 개선책에 대한 의견

성별	명(%)					
	관련법 개정	사회구조 개선	의식개혁 캠페인	노력 불필요	기타	계
남자	17(8.3)	44(21.6)	121(59.3)	6(2.9)	16(7.8)	204(100.0)
여자	27(13.5)	78(39.0)	89(44.5)	1(0.5)	5(2.5)	200(100.0)
계	44(10.9)	122(30.2)	210(52.0)	7(1.7)	21(5.2)	404(100.0)
		$\chi^2=25.921$	$p=0.000$			

<표 13> 원하는 자녀의 수

성별	명(%)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계
남자	17(8.2)	145(70.0)	36(17.4)	2(1.0)	7(3.4)	207(100.0)
여자	23(11.5)	128(64.0)	39(19.5)	7(3.5)	3(1.5)	200(100.0)
계	40(9.8)	273(67.1)	75(18.4)	9(2.2)	10(2.5)	407(100.0)
		$\chi^2=6.338$	$p=0.175$			

다(14.5%)의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의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들이 꼭 있어야 함'(24.8%), '있는 것이 좋음'(35.5%), '없어도 무관함'(39.4%)의 결과와 비교할 때 아들에 대한 선호가 낮게 나타났다(조남훈 외, 1997).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 < 0.002$), 남학생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42.0%)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없어도 된다'(38.6%), '있어야 한다'(19.3%)로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없어도 된다'(53.5%)가 절반이상으로 답하였고 다음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37.0%), '있어야 한다'(9.5%)의 순으로 답하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아들

에 대한 선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누가 가장 아들을 원할 것 같습니까'의 질문에는 전체응답자 중 '시가'(52.5%)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본인'(12.6%), '배우자'(7.1%), '처가'(5.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0$)<표 16>.

남아선호사상에 관한 타 연구의 결과도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인 남아선호관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사회적 노력을 경주하여 이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위하여 학교 교육의 강화는 물론 가족제도를 포함한 모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김정연, 1992; 부산 YWCA,

<표 14> 결혼 후 자녀를 하나만 가질 경우 원하는 자녀의 성 명(%)

성별	아들	딸	상관없다	모르겠다	계
남자	64(30.8)	34(16.3)	104(50.0)	6(2.9)	208(100.0)
여자	24(11.9)	31(15.4)	140(69.7)	6(3.0)	201(100.0)
계	88(21.5)	65(15.9)	244(59.7)	12(2.9)	409(100.0)
$\chi^2 = 23.519$		$p = 0.000$			

<표 15> 아들의 필요성 명(%)

성별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없어도 된다	계
남자	40(19.3)	87(42.0)	80(38.6)	207(100.0)
여자	19(9.5)	74(37.0)	107(53.5)	200(100.0)
계	59(14.5)	161(39.6)	187(45.9)	407(100.0)
$\chi^2 = 12.306$		$p = 0.002$		

<표 16> 아들 선호자 명(%)

성별	본인	배우자	시가	처가	모르겠다	계
남자	38(18.4)	19(9.2)	76(36.7)	13(6.3)	61(29.5)	207(100.0)
여자	13(6.5)	10(5.0)	137(68.8)	8(4.0)	31(15.6)	199(100.0)
계	51(12.6)	29(7.1)	213(52.5)	21(5.2)	92(22.7)	406(100.0)
$\chi^2 = 43.350$		$p = 0.000$				

일신기독병원, 1997). 일부 연구에 의하면 남녀대 학생 모두 남아선호관을 벗어나고 있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남아선호사상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된 것은(양명숙, 1996).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4. 성비불균형

남아선호사상에서 오는 성비불균형 현상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성비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는 태아성감별과 이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에 대하여 4문항을 조사하였다.

1) 성비불균형의 인식

'남아선호로 인한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다소 심각하다'(61.1%)가 가장 많았고, '매우 심각하다'(25.4%), '모르겠다'(7.3%), '거의 심각하지 않다'(5.4%), '전혀 심각하지 않다'(0.7%)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전체학생의 86.5%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남녀대학생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17>.

2) 성감별

'남아선호에 따른 태아성감별에 대하여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의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71.6%가 '반대'('약간 반대' 25.9%, '적극반대' 45.7%)의사를 나타냈고, 15.4%는 '찬성'('약간 찬성' 13.7%, '적극 찬성' 1.7%), 13.0%가 '모르겠다'로 응답하여 많은 수의 학생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대학생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8>.

다음은 '태아성감별에 따른 여아의 인공임신중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대다수인 88.4%가 '반대'('약간 반대' 13.8%, '적극 반대' 74.6%)로 응답하였고, 5.1%가 '찬성'('약간 찬성' 3.9%, '적극 찬성' 1.2%), 6.4%가 '모르겠다'로 응답하였으며,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9>.

'태아성감별시 법적인 처벌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의사와 부인'(55.8%)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모두 처벌안함'(16.2%), '모르겠다'(15.5%), '의사'(10.1%), '부인'(2.5%)의 순이었으며,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0>.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에서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사회적 여파로서 이미 초등학생의 성비불균형, 장래 결혼적령인구의

<표 17> 남아선호로 인한 출생성비 불균형에 대한 인식 명(%)

성별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모르겠다	거의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계
남자	47(22.6)	130(62.5)	14(6.7)	15(7.2)	2(1.0)	208(100.0)
여자	57(28.4)	120(59.7)	16(8.0)	7(3.5)	1(0.5)	201(100.0)
계	104(25.4)	250(61.1)	30(7.3)	22(5.4)	3(0.7)	409(100.0)

$$\chi^2 = 4.619 \quad p = 0.329$$

<표 18> 남아선호에 따른 태아성감별 찬반여부 명(%)

성별	적극찬성	약간찬성	모르겠다	약간반대	적극반대	계
남자	5(2.4)	26(12.5)	29(13.9)	55(26.4)	93(44.7)	208(100.0)
여자	2(1.0)	30(14.9)	24(11.9)	51(25.4)	94(46.8)	201(100.0)
계	7(1.7)	56(13.7)	53(13.0)	106(25.9)	187(45.7)	409(100.0)

$$\chi^2 = 2.080 \quad p = 0.721$$

<표 19> 태아성감별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찬반여부

명(%)

성별	적극찬성	약간찬성	모르겠다	약간반대	적극반대	계
남자	2(1.0)	10(4.8)	14(6.8)	23(11.1)	158(76.3)	207(100.0)
여자	3(1.5)	6(3.0)	12(6.0)	33(16.6)	145(72.9)	199(100.0)
계	5(1.2)	16(3.9)	26(6.4)	56(13.8)	303(74.6)	406(100.0)

$\chi^2 = 3.541$ $p = 0.472$

<표 20> 태아성감별시 법적 처벌대상에 대한 인식

명(%)

성별	의사	부인	의사와 부인	모두 처벌안함	모르겠다	계
남자	28(13.6)	3(1.5)	108(52.4)	31(15.0)	36(17.5)	206(100.0)
여자	13(6.5)	7(3.5)	119(59.2)	35(17.4)	27(13.4)	201(100.0)
계	41(10.1)	10(2.5)	227(55.8)	66(16.2)	63(15.5)	407(100.0)

$\chi^2 = 9.089$ $p = 0.059$

문제(조남훈, 1994), 특히 지역간 출생성비의 차이에 대한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남아선호사상의 불식(김일현, 1990), 또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여성지위의 향상, 태아성감별행위의 금지(Hong Moon Sik, 1995) 등 많은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의식, 성선호도 및 성비불균형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 및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성문화정립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일 대학 대학생 중 남학생 208명, 여학생 201명 총 409명이었으며, 조사기간은 1998년 6월5일부터 6월11일이었다. 연구도구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PC+, SA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χ^2 -test, t-test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남자 208명, 여자 201명이었고, 연령별로는 20-24세가 67.2%, 다음은 25-29세 14.7%로 20대가 전체의 81.9%를 차지하였다. 거주형태는 부모와 동거 84.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형제자매수는 1남1녀가 2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남2녀 14.9% 등의 순이었다. 종교는 없는 사람 39.6%,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9.1%로 더 많았고, 그 중 기독교가 31.5%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소득은 100-200만원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00만원미만 23.5%의 순이었다. 부모의 직업중 아버지는 사업(상업포함)이 34.9%로 가장 많았고, 기술직 18.1%, 사무직 11.0% 등의 순이었으며,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48.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사업(상업포함) 14.7%, 서비스직 6.6% 등의 순이었고, 부모와의 인간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만족함이 62.3%, 어머니와는 83.9%로 어머니와의 친밀함이 더 크게 나타났다.

2. 성만족도는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001$), 남학생은 대다수의 학생인 90.4%가 자신의 성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고, 여

학생은 68.7%가 만족하고 있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의 질문에 전체의 42.9%가 '남성'을 원하였고, '어느 성이든 상관없다' 33.6%, '여성' 23.5%의 순이었으며,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 < 0.000$), 남학생은 다시 '남성'을 원하는 응답이 54.3%, '여성'을 선택한 것이 13.0%인데 비하여 여학생은 다시 '여성'을 원하는 응답이 34.5%, '남성'을 원하는 것이 31.0%로 나타났다. 남성을 선택한 이유로는 '사회적으로 유리하므로' 39.0%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여성을 선택한 이유로는 '여자가 좋다' 41.2%의 답변이 가장 많았다.

3.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조사에서 남학생은 '가정내에서 여자에 비해 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의 질문에 59.1%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 39.5%는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가정내에서 남자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의 질문에 53.3%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 45.3%는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다음은 남학생에게 '학교에서 자신의 언행으로 상대방 여학생이 불쾌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가'의 질문에 55.3%가 '그렇다' 42.8%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학교내에서 남자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의 질문에 57.3%가 '그렇지 않다', 42.8%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다음은 '우리 사회가 성차별적 사회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95.6%가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 < 0.000$), 여학생이 훨씬 더 우리 사회에 대하여 성에 대한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지식과 관련된 것으로 '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전체응답자 중 65.4%가 '그렇다', 34.6%는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실제 성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6점만점에 평균점수가 4.1247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평균이 3.76, 여학생은 4.50으로 여학생이 성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식에 대한 습득경로는 '대중매체'가 3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주위친구' 31.9%, '학교 성교육'

15.1%, '책' 13.6%, '부모' 2.0%의 순으로 가정, 학교에서의 교육이 낮게 나타났다.

5. 성개방과 관련된 태도의 조사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혼전 성관계는 가능하다'의 질문에서 남학생은 평균점수가 3.38인데 비해 여학생은 2.25로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냈고, 또한 '사랑이 없어도 성관계는 가질 수 있다'의 질문에는 남학생은 평균점수가 3.34, 여학생은 1.68로 남학생이 훨씬 더 개방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검증에서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혼전 성관계는 가능하다', '사랑이 없어도 성관계는 가질 수 있다'의 질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6. 성사회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다수의 학생이 우리 사회의 풍조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남녀대학생간에는 '우리 사회는 성폭력이나 성희롱문제가 심각하다'의 질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 < 0.0001$), 여학생은 평균점수가 4.34로 남학생 3.91에 비하여 그 심각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검증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7. 남아선호사상에 관련된 조사로 '우리 사회가 여아에 비하여 남아를 선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97.1%가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남아선호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들이 있어야 대를 이을 수 있으므로' 37.5%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아들이 있어야 제사를 지낼 수 있으므로' 16.1%, '딸은 남의 집 사람이 되므로' 15.5%, '아들이 있어야 노후가 보장 되므로' 15.4%, '시택에 땀땀하므로' 12.3%, '아들의 능력이 월등함' 3.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남아선호사상의 개선책'에 대한 질문에는 '의식개혁 캠페인' 52.0%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회구조개선' 30.2%, '관련법개정' 10.9%, '노력 불필요' 1.7%의 순이었으며,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0$). 다음은 자녀관에 대한

질문으로 '원하는 자녀수'의 질문에 '2명' 67.1%로 가장 많았고,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녀를 하나만 가질 경우 어느 성별을 원하는가'의 질문에 '상관없다' 59.7%로 가장 많았고, '아들' 21.5%, '딸' 15.9%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0$).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는 '없어도 된다' 45.9%,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39.6%, '있어야 한다' 14.5%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2$). '누가 가장 아들을 원할 것인가'의 질문에는 '시가' 5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본인' 12.6%, '배우자' 7.1%, '처가' 5.2%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0$).

8. 성비불균형에 대한 조사로 '남아선호로 인한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에 대한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86.5%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남녀대학생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남아선호에 따른 태아성감별의 찬반여부'의 질문에는 전체응답자의 71.6%가 반대로 응답하였고, 남녀대학생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은 '태아성감별에 따른 여아의 인공임신중절 찬반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전체응답자의 88.4%가 반대로 응답하였고,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태아성감별시 법적인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의 질문에 '의사와 부인' 55.8%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모두 처벌안함' 16.2%, '모르겠다' 15.5%, '의사' 10.1%, '부인' 2.5%의 순이었으며, 남녀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교육이 어릴 적부터 실시되어야 하겠고, 성교육의 내용이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단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교육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하겠다. 또한 남아선호 및 출생성비불균형의 문제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이 문제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서의 부정적 파급효과

등을 경고함으로써 국민의식의 개혁을 도모하여야 하겠고, 더 나아가 사회구조 개선, 관련법 개정 등의 사회전반에 걸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준상(1971), 중고교생의 성에 대한 태도, 가족 계획, 대한가족계획협회
- 국제가족계획연맹, 대한가족계획협회(1996), 인간의 성과 생식권리현장
- 국제가족계획연맹(1998), Gender Awareness Training
- 김엘림(1991),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일현(1990), 한국의 출생성비분석,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3-153
- 김정연(1992), 서울지역부인들의 남아선호사상과 출산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 김형섭(1994), 강릉대 재학생들의 결혼관과 연애관에 관한 의식조사, 강릉대학생 생활 연구, 13(2):65-99
- 김주수(1974), 가족계획추진을 위한 가족법개정에 관한 연구, 가족계획연구원
- 김주수(1990), 개정 가족법의 개정경위와 과제, 한국가족법학회 학술세미나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현, 주학중(1994), 남녀인구의 불균형추이와 사회문제의 전망, 인구문제연구소
- 대한가족계획협회(1991), 가족계획 30년사
- 박재빈(1994), 출생을 저하에 따른 성비의 불균형과 파급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산 YWCA, 일신기독병원(1997), 부산지역여성의 남아선호경향과 성비불균형 문제에 관한 의식조사
- 신성철(1987), 우리나라 출생아 성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통계학회지, 12(1):30-40
- 양명숙(1996),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유훈(1994), 임신과 분만, 성교육, 성상담, 대한가족계획협회
이동원, 김모란, 김현주(1994), 남녀 대학생의 성 역할모델과 취업 및 결혼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집, 191-212
이옥자(1976), 여고생과 근로여성의 혼전성교, 전남대학교지
이혜경(1990), 한국의 사회변동과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정석진, 이흠숙(1995), 서울산업대생의 결혼관과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 생활연구, 10:23-47
조남훈(1994), 성비불균형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남훈 외(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한국성문화연구소, 대한가족계획협회(1997), 생활속의 성이야기
한국성문화연구소, 대한가족계획협회(1997), 성인

의 성의식 및 성선호도 조사연구

한국성문화연구소, 대한가족계획협회(1997), 여고생의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
헌법재판소(1997), 민법 제 809조, 제1항 위헌제정, 헌판집, 9-2
홍문식 외(1994),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hang, Ming Cheng(1994), Sex Preference and Sex Ratio at Birth, ; The Case of Taiwan, 한국인구학회지, 17(2):98-116
Gu, Bao Chang, Li, Yong Ping(1994), Sex Ratio at Birth and Son Preference in China, 한국인구학회지, 17(2):116-135
Hong Moon Sik(1995), Boy Preference and Imbalance in Sex Ratio in Korea
United Nations(1994), Plan of Ac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1995), Platform of Action, Fourth World Conference of Women

= ABSTRACT=

A Study on Sex Consciousness, Son Preference and Sex Ratio Disproportion of the College Students

Myung Sun Hong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Gachon Gil College)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a way which is to establish a desirable value and social culture related to sexuality.

This study examined student's value and preference about sex and at the same time resolving method to correct ill-rooted value of male preference in our social culture.

This study subjects consisted of 409 male and female students of a college located in Incheon area.

The study data collected from June 5th to June 11th, 1998. Survey technique was chosen to collect data and analyzed by SPSS/PC+, SAS program using statistical methods of frequency, percent, χ^2 -test and t-test.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

1) Sex satisfaction score of 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female students and the difference was significant statistically ($p < 0.0001$).

2)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thought that our society's structure has a sex discrimination. But female students felt strongly inequality of sex in our society.

3) 65.4% of total students have a general knowledge about sex and female student's score was higher than male students . The high percent of students get into know sex through mass media (32.6%) and peer groups (31.9%).

4) Student's attitude to sex was different from male and female students. Male students have more liberal attitude about sex than female students.

5) 97.1% of the total students believe that our society has son preference.

6) 86.5% of the total students thought that sex ratio disproportion resulted from male preference is worriable problems in our societ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oth sexes.